

광주 서구, 문화소외 현장 '국악공연' 선물



문화소의 현장 '국악공연' 사진

/광주 서구청 제공

관람 여건에 맞춘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지원 사업 추진 학교·기관·단체 대상 프로그램 운영...19일까지 신청 접수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주민들을 위해 '2026년 빛고을국악전수관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복지시설 이용자 등 문화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국악 공연을 선보이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내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연은 연말까지 성악, 기악, 연희, 장르복합 등 다양한 장르로 진행하며 빛고을국악전수관 국악문화학교 우수 수강생과 지역 전문 국악팀이 참여한다.

특히 기관별 관람 대상과 인원, 공연 시간, 장소 여건 등을 반영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공연의 몰입도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

이다.

서구는 오는 19일까지 관내 복지시설 등 문화 접근 취약계층 이용시설 5곳을 모집한다. 신청은 빛고을국악전수관 학예연구실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hyojin1031@korea.kr), 전화(062-350-4556) 등으로 가능하다.

채봉길 문화예술과장은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국악의 즐거움을 전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문화복지 실현과 착한도시 서구 가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9회 운영해 4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 3월 빛고을국악전수관 재개관 이후에도 공연·전시·교육 등 다양한 국악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힘쓰고 있다.

올해 운영되는 찾아가는 국악공연은 기존보다 참여 대상과 프로그램 구성을 확대해 보다 다양한 계층이 국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현장 여건에 맞춘 맞춤형 무대 연출을 통해 공연 몰입도를 높이고 관람 만족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빛고을국악전수관은 지역 국악인재와 전문 예술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 구조로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이가영 기자

광주 남구, 8월의 여름밤 '산타 대작전' 돌입

'한여름 크리스마스' 후원자 모집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특별한 선물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한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선물 후원 캠페인을 추진하고,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할 산타 모집에 나선다.

최근 남구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가정 형편 등의 이유로 원하는 선물을 쉽게 마련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구는 매년 겨울이 아닌 무더운 여름에도 산타가 찾아온다는 의미를 담아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으로 뜻깊은 선물을 제공하는 나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남구는 지난 5월 한달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 아이들의 다양한 소원을 담은 편지 100여통을 접수했다.

기아타이거즈 김도영·양현종 선수처럼 멋진 야구 선수가 되어 엄마께 효도하고 싶은 초등생 야구 선수부터 출생 당시 뇌 손상으로 10년째 재활 중인 아이를 위해 운동용 자전거가 필요한 어머니,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단 한번도 먹지 못했다는 아이 등의 사연이 편지를 통해 전달됐다.

이에 따라 남구는 아이들의 소원에 응답하고자 개인을 비롯해 기

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산타 후원자를 공개 모집한다. 후원자는 소원카드를 확인한 뒤 아동의 산타가 되어 선물을 직접 후원하거나, 후원금으로 구입한 선물을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아이들의 선물은 다가오는 8월 중에 전달될 예정이다.

산타 후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복지정책과(☎ 607-3341) 또는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676-3332)로 문의하거나,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아이들에게는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소원을 응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면서 "올 여름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물할 산타가 되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지난해 개인과 단체 등 산타 후원자 56명을 발굴해 2,665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은 바 있다.

올해 캠페인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참여형 나눔 활동으로 확대돼 많은 시민이 '산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남구는 소원 편지에 담긴 아이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맞춤형 선물 매칭을 진행해 의미를 더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과 단체의 참여를 유도해 지속 가능한 지역 나눔 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달 방식 역시 아동의 상황을 고려해 직접 방문 전달과 비대면 전달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아이들이 받은 선물은 단순한 물품을 넘어 정서적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게 된다.

/이문수 기자



2025년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출범식 사진

/광주 남구청 제공

